53개 그림으로 한국인·도시 인문학적 성찰

철학이 있는 도시

우석영 지음

10년을 해외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젊은 예술사회학자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 사회는 변해도 너무 변해 있었다. 무한경쟁 질서가 안착되고, 도덕은 무력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표준화된 삶의 모델로 추구하는 '아파트 공화국'이면서 반은 거주이지만 반은 표류하는 '거류'(居流)가 대다수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주택에 살다 어느 날 아파트살이를 하게 된 한 할머니가 베란다 창을 열고 "이곳이 다 내 앞마당이다"고 소리질렀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중요한 삶의 공간인 마당을 잃은 이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하소연이자 절규였다.

서울숲같이 새로 개발된 녹지에 아침부터 텐트를 치는 집단 캠핑과 특정영화를 1000만명이 보고, '인터넷 검색어 1위'로 전 국민적 화제를 통일하는 집단주의 도시문화를 당연시했다.

철학·사회학 분야 연구자이자 작가인 우석영씨가 최근 펴낸 '철학이 있는 도시'는 고대와 현대,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53개의 미술작품을 통해 당대의 한국 도시와 한국인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한다. 그림읽기(회화비평)를 매개로 한 사회비평이다.

저자는 개개인의 인간적 삶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주목했다.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일상에 밀려 대다수 한국인이 오늘날 도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등을 탐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 그는 학부에서 미술사회학을 전공했고, 그 뒤로 미술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중단해 본일이 없다고 한다.

저자는 '아파트에 한 뼘의 땅을 선사함'(김정헌)과 '이사가는 사람'(임옥상) 작품을 통해 아파트살이 위주의 거주, 정주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본다. 고속성장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도시로 떠밀려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산동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황토빛 땅과 흙을 꿈꾼다.

또한 '석양 쪽으로 향하는 증기기관차'(베르나르 간트너)와 '전기요정'(라울 뒤피), '행진의 현장-붉은 타워'(로베르 들로베)에서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현대문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멕시코 리얼리즘 미학과 벽화운동으로 유명한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의 '프롤레타리안 마더'는 빈곤으로 수난받는 오늘날 모든 이들과 오버랩된다. 프리다 칼로의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의 '무어박사의 손' 작품 역시 신이 되려는 인간의 모습을 본다.

저자는 개발과 환경지속 가능성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묻는다. 저자는 "이 나라의 시민과 도시행정가들은 어떤 삶으로 우리가 이동해야 하는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양이다. '동궐도'(도화서)와 '삼승조망'(정선)을 남긴 이들에게, 한양의 조성가들에게 아직도 우리는 많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현재의 우리 사회와 도시에 무엇이 결핍돼 있는지, 앞으로 인간적 삶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모색해야 하는지 화두(話頭)를 던진다. 〈궁리·1만8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여성 작가들의 은밀한 창작 무대 들여다보기

글 쓰는 여자의 공간

타니아 슐리 지음

작가에 대한 호기심은 독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 '책'을 통해 드러나는 것 말고, '실제'의 작가 모습. 특히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글을 쓰는 지 궁금해진다.

'글 쓰는 여자의 공간'은 여성 작가 35인의 은밀한 창작의 무대를 들여다 본 책이다. 오래 전 여성 작가들은 새벽녘 식탁 위에서 글을 썼다. 중국 작가 장지에는 화장실 변기 위에 널빤지를 올려놓고 600쪽에 달하는 장편소설을 썼다고 한다.

독일 출신 출판 편집자이자 작가인 저자 타니아 슐리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창작의 흔적을 묘사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풍부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작가 모습은 최근 개봉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캐롤'과 '재능있는 리플리'의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다. 흑백 사진 속 그녀가 담배를 꼬나물고, 타자기 앞에서 양손을 든 채 글쓰기를 준비하는 모습은 강렬하다.

사르트르의 사진과 여러 개의 담뱃갑, 책들이 놓여있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서재와 '세계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듯한 그녀의 사진 역시 인상적이다.

전기 작가 다니엘 슈라이버로부터 '스스로를 창조한 자기 연출의 대가'로 명명된 수전 손택, 61년간 살았던 집에서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글을 썼던 '삐삐 롱스타킹'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리스트·쇼팽·플로베르의 연인이자 180권의 책과 1만5000장 편지, 수도 없이 많은 신문기사를 쓴 조르주 상드도 흥미롭다.

그밖에 엄청난 스피드광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모르핀과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 프랑수아즈 사강, 서른살의 나이에 가스 밸브를 열어둔 채 오븐에 머리를 집어 넣어 자살한 실비아 플라스의 고단한 글쓰기,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인간' 한나 아렌트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독자들이 책에서 소개한 작가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거나, 못마땅한 구석이 생기거나, 그들에게 뭔가를 묻고 싶어지거나, 다시 한번 그들의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싶다고 했다.

저자의 의도는 나름 적중했다. 책 속에 등장하는 '그녀들'이 쓴 책을 다시 한번 꺼내 읽고 싶어진다. 〈이봄·1만4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여행자의 인문학=21명의 예술가와 함께 떠나는 유럽여행'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은 명작의 산실을 찾아 나선 여행기다. 저자 문갑식은 영국 요크셔주 고원의 미친 듯한 바람속에서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의 주인공들과 대화를 나누고 피카소가 산책했던 앙티브 해변에서 천재화가의 사랑에 대해 회상한다. 셜록 홈스, 알베르 카뮈, 루이스 캐럴, 찰스 디킨스, 워즈 워스, 오스카 오일드, 모파상 등 거장들과 떠나는 여정이 펼쳐진다. 〈다산 3.0·1만3800원〉

▲가타기리 주류점의 부업일지=허름한 상점가의 특별한 것 없는 주류 판매점을 배경으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기적과 감동을 담고 있다. 지방 소도시, 허름한 상점가 맨 끝에 위치한 평범한 가타기리 주류점. 유리문에는 '무엇이든 배달합니다'라는 벽보가 붙어 있다. 어쩐지 주류 판매보다 부업인 배달 일이 더 많은 눈치다. 뉘엿뉘엿 해가 저물면 저마다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가타기리 주류점'을 기웃거린다. 〈비채·1만3000원〉

▲오십 미터=1991년 '현대시세계'로 등단해 2016년 올해로 등단 25년을 맞은 시인 허연의 네번째 시집. 이번 시집에는 2013년 현대문학상 수상작 '북회귀선에서 온 소포' 외 6편과 시작작품상 수상작 '장마의 나날' 등이 수록돼 있다. 시인은 시집 '오십 미터'로 세월 속에 찌든 슬픔, 마모되어 소멸해가는 존재들에 시선을 보내며 일상 속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날선 타자로 견뎌나가는 시인의 사투, 그만의 업(業)을 완성하려는 치열한 자세를 보여준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군사전문기자 유용원의 핫이슈 칼럼집. 최근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안보위기, 군내 폭행사망사건과 방위산업 비리 등으로 절박한 한국군 개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25년을 설계하기 위해 지난 25년을 되돌아보며 최근까지 썼던 칼럼들 중에서 국방 핫이슈와 문제의식을 담았던 칼럼들을 선정해 칼럼집을 펴냈다. 〈플래닛미디어·2만2000원〉

▲휘둘리지 않는 힘=선전과 유혹이 가득한 시대다. 그동안 진정한 삶의 가치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온 김무곤 교수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읽기 위한 근원적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4대 비극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9명의 생각의 중심을 간파해나가며, 휘둘리지 않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더숲·1만4000원〉

어린이 책

▲첫걸음 한국사(전 4권)=세 나라가 어우러져 살았던 삼국 이야기,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이후 생겨난 후백제, 후고구려부터 다시 이들 나라를 통합한 고려 이야기,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오백 년 조선 이야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 조선 후기에 있었던 갖가지 사건들부터 대한제국이 생성되고, 일제강점기 등 근대이야기까지 4권으로 묶었다. 〈가교출판·각 권 1만3000원〉

▲최강 공룡 배틀=증강현실 체험도서. 1인용 모드에서는 공룡이 독자의 방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룡의 특징을 살펴본다. 전투모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공룡들끼리의 전투를 사실과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접 내 손으로 무시무시한 육식공룡들의 전투를 체험할 수 있다. 〈아이위즈·1만4700원〉

▲우당탕! 싸움은 이제 그만!=친구 관계에 서툴고,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관심 받고 싶은 마음과 친구에게 장난치고 싶은 마음을 거칠고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마르타와 엔리케는 선생님조차 고개를 저어버리는 소문난 말썽쟁이들이다.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카밀로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를 배우게 된다. 〈노란상상·9500원〉

▲공부없는 나라=아이들이라면 한번쯤 꿈꿔본 '공부 없는 나라'. 이 흥미진진한 상상력을 통해 진짜 공부의 이유를 찾아가는 영훈을 만난다. 왜 공부가 필요한지,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흥미진진한 판타지 이야기로 스스로 공부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름다운사람들·1만1000원〉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북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